



La Comédiathèque

맞은편 창문

Jean-Pierre Martinez

comediatheque.net

저작권 및 공연권

본 작품의 텍스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자의 사전 허가 없이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각색 또는 변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 희곡은 개인적인 열람을 목적으로 무료로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 및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모든 공개 공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공연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피에르 마르티네스(Jean-Pierre Martinez)는 프랑스 작가·작곡가 협회인 SACD를 통해 저작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 허가 및 저작권에 관한 문의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jeanpierremartinez.net/en/contact-2/>

맛은편 창문

Jean-Pierre Martinez

번역 및 각색: 저자

자살을 생각하던 노작가의 집에,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다는 젊은 여자가 갑자기 찾아온다. 그 방문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

등장인물

알렉상드르

매디슨

© La Comédiathèque

파리의 한 아파트 거실. 보헤미안 분위기. 작은 책상 위에는 오래된 타자기와 몇 개의 서류철이 놓여 있다. 예순을 넘긴 소설가 알렉상드르가 들어온다. 무심한 듯하지만 은근히 멋을 낸 차림이다. 손에는 올라미가 달린 밧줄을 들고 있다. 천장을 올려다본 뒤 의자 위에 올라가 밧줄을 걸 만한 곳을 찾는다.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듯 의자에서 내려온다. 책상 앞에 앉아 지친 듯 한숨을 쉰다. 서랍을 열어 담배 한 갑을 꺼내 한 개비를 입에 문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고 책상 위에 내려놓은 뒤, 서랍에서 권총을 꺼낸다. 한참 동안 총을 바라본다.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생각에 잠겨 듣지 못한다. 총구를 관자놀이에 댄다. 다시 노크 소리. 이번에는 조금 더 크다. 그래도 듣지 못한다. 방아쇠를 당길지 망설이는 듯 눈을 감는다... 그 순간 젊은 여자가 그의 앞에 불쑥 나타난다. 매디슨이다. 스무 살에서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학생으로, 비교적 단정한 옷차림이다.

매디슨 (소리치며) - 안 돼요!

깜짝 놀란 알렉상드르는 펄쩍 뛰며 일어나 매디슨에게 총을 겨눈다.

알렉상드르 - 끔찍 마! 움직이면 쏜다!

매디슨 - 쏘지 마세요, 제발요!

알렉상드르 - 손 들어!

젊은 여자는 즉시 두 손을 든다.

매디슨 - 보세요, 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잖아요... 이제 제발 총을 내려주세요.

젊은 여자가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자 그는 총을 내린다.

알렉상드르 -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지?

매디슨 - 다 설명할게요... 숨부터 좀 돌리게 해주세요...

알렉상드르 - 제정신이야?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잖아!

매디슨 - 죄송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알렉상드르 - 그래서 들어오라는 초대장인 줄 알았나?

매디슨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알렉상드르 - 뭘 원하는 거야? 날 털러 왔나? 여기엔 훔칠 만한 것도 없어. 정말이야.

매디슨 - 저, 이웃이에요.

알렉상드르 - 옆집? 옆집엔 여든 살 된 할머니가 사는데...

매디슨 - 옆집 말고 맞은편이요... (객석 쪽의 상상 속 창문을 가리키며) 저 창문이 제 아파트 창문이에요.

알렉상드르 - 맞은편? 몇 년째 빈집이었는데.

매디슨 - 이제는 아니에요.

알렉상드르 - 그래서?

매디슨 –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데리고 계신다든지... 저처럼 초대도 안 받았는데 들어왔을지도 모르잖아요.

알렉상드르 – 유감이지만 못 봤어. 보아하니 자네 고양이가 자네보다 예의는 더 바른 모양이군.

그녀는 몹시 상심한 듯 보인다.

매디슨 – 벌써 이틀째 안 돌아와요. 이름하고 사진을 넣은 전단을 동네 곳곳에 붙였는데, 못 보셨어요?

알렉상드르 – 난 거의 밖에 안 나가고 그런 전단도 안 봐. 게다가 고양이 얼굴은 봐도 누가 누군지 잘 몰라.

그녀가 방 안을 몇 걸음 돌아다닌다.

매디슨 – 두부! 두부!

알렉상드르 –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어디 아픈 거야?

매디슨 – 고양이 이름이 두부예요.

알렉상드르 – 고양이 이름이 두부라고? 농담이지...

매디슨 – 진짜예요. 왜요?

알렉상드르 – 좋아. 고양이 이름은 두부고, 이틀째 집에 안 들어왔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매디슨 – 당연히 큰일이죠! 빨리 못 찾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평생 집 안에서만 자란 고양이 라 밖에서 혼자 살 수가 없다고요.

알렉상드르 – 안됐군. 내가 젊었을 때 고양이는 밖을 돌아다니는 동물이었어. 시골이거나, 적어도 정원이 큰 집에서 말이지. 하루 종일 쥐를 잡으러 다니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면 밥을 얻어먹고, 조금 쓰다듬어 달라고 한 뒤 소파에서 잤지. 그걸로 충분했어.

매디슨 – 하지만 이 아이는 쥐를 안 먹어요. 채식 고양이에요.

알렉상드르 – 뭐라고?

매디슨 – 제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제 고양이도 안 먹어요.

알렉상드르 – 그럼 뭘 먹는데?

매디슨 – 사료요! 채소가 들어간 사료. 저처럼요.

알렉상드르 – 자네도 사료를 먹나?

매디슨 – 가끔은요. 물론 고양이 사료는 아니고요.

알렉상드르 – 채식 고양이라...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군. 그래서 이름이 두부인가?

매디슨 – 네... 이름도 그렇고, 좀 엉뚱한 아이예요.

알렉상드르 – 고기를 안 먹는 것도 물론 본인이 직접 선택한 거겠지?

매디슨 – 적어도 불평한 적은 없어요.

알렉상드르 – 그럼 요즘은 서커스의 호랑이나 사자한테도 채소 사료를 먹이나?

매디슨 – 모르겠어요... 어차피 전 서커스에서 동물을 쓰는 것 자체에 반대하거든요.

알렉상드르 – 하지만 아파트에 고양이를 가둬 키우는 건 괜찮고.

매디슨 – 반려동물은 안 키우시나 보네요.

알렉상드르 – 그래. 난 ‘길들인다’는 발상 자체가 싫어. 동물뿐 아니라 뭐든 길들이려 드는 것도. (조금 위협적으로) 나 자신도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고...

그녀는 전혀 겁먹지 않고 방 안을 둘러본다.

매디슨 – 그러니까 제 고양이는 못 보셨다는 거죠?

알렉상드르 – 자네의 비건 고양이는 못 봤어. 미안하지만 이 터무니없는 대화도 이제 충분한 것 같군.

그녀가 갑자기 굳어 선다.

매디슨 – 췌!

알렉상드르 – 뭐라고?

매디슨 – 방금 야옹 소리 못 들으셨어요?

알렉상드르 – 야옹? 전혀. 나도 이제 귀가 좀 어두워져서 말이지. 나이를 먹는 것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야. 특히 이웃이 시끄러울 때는.

매디슨 – 전 정말 조용히 살아요. 한 달 넘게 바로 맞은편에 살았는데도 계속 빈집인 줄 아셨잖아요.

알렉상드르 – 그래, 자네가 있는 줄도 몰랐지.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군. 다른 용건이 없다면 난 내 일을 계속할 테니 자네는 고양이나 찾으러 가게.

매디슨 – 알겠어요.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알렉상드르 – 고맙군.

그녀는 나가려다가 마음을 바꾼다.

매디슨 – 그런데... 이렇게 두고 가기가 좀 마음에 걸려요.

알렉상드르 – 이렇게가 어떤 건데?

매디슨 – 제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은...

알렉상드르 – 뭐?

매디슨 – 그러니까... 별로 괜찮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알렉상드르 –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매디슨 – 관자놀이에 권총을 대고 계셨잖아요.

그는 아직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을 이제야 생각난 듯 바라본다.

알렉상드르 – 아, 이거? 그래서?

매디슨 – 그러니까... 조금 우울하신 거 아닌가 해서요.

알렉상드르 – 우울하다고? 아가씨, 내가 자네 나이였을 땐 우리 세대의 구호가 ‘빠르게 살고, 젊어서 죽고, 멋진 시체를 남겨라’였어. 들어본 적 있나?

매디슨 – 제임스 딘...

알렉상드르 – 콘돔도 안 쓰고, 헬멧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성분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약물까지 닥치는 대로 삼켰지... 그런데 오십 년 뒤, 그 시절을 살아남은 나 같은 늙은이들이 이제는 백신이 무섭다고 거리에서 시위를 해. 이걸 보고도 우울해하지 말라고?

매디슨 –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알렉상드르 – 아니, 아직은 이해 못 해. 하지만 운 나쁘게 내 나이까지 살게 되면 알게 될 거야. 늙는다는 건 난파하는 것과 비슷하니까.

매디슨 – 꽤 어두운 비유네요.

알렉상드르 – 옛날부터 비슷한 말은 있었지. 늙는다는 건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에서, 무덤을 앞에 두고 회고록을 쓰는 나이로 넘어가는 거야.

매디슨 – 멋진 표현이네요.

알렉상드르 – 그런가?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늙은이처럼 산다는 거야.

매디슨 – 어느 시대나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알렉상드르 –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야. 지구를 구하려고 하지. 그런데 보아하니 그것도 이미 꽤 늦은 것 같고.

매디슨 – 선생님 세대는 세상을 바꾸는 데 성공했나요?

알렉상드르 – 아니. 그래도 적어도 실컷 즐기긴 했지.

매디슨 – 지금은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으시네요.

알렉상드르 – 자네도 그리 즐거워 보이진 않아. 아니면 고양이랑 연애하고 있진 않겠지.

매디슨 – 적어도 혼자사는 아니잖아요.

알렉상드르 – 그래서 정말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은 육식동물한테 채소 사료를 먹이면서?

매디슨 – 모르겠어요. 그래도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지구가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가라앉는 타이타닉호 위에서 혁명해 봐야 무슨 소용이예요?

알렉상드르 – 어쨌든 서론도 되기 전에 죽은 우리 세대 사람들이 부럽군. 지미 헨드릭스나 재니스 조플린이 요양원에서 카드 한 판 치고는 백신이 위험한지 토론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 그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매디슨 – 그런 말씀 마세요.

알렉상드르 – 불행히도 문학은 그다지 록앤롤하지 않아. 작가들은 대개 침대에서 죽거든.

매디슨 – 작가세요?

알렉상드르 – 자네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난 자네를 알지도 못해. 그런데 대체 아직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권총을 서랍에 넣는다.

매디슨 – 다치실 뻔했잖아요.

알렉상드르 – 자네를 죽일 뻔하기도 했지.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오면 그런 위험이 따르는 법이야. 정당방위라고 했으면 처벌도 안 받았을지 모르고. *(그녀가 살짝 휘청이는 것을 보고 걱정하며)* 괜찮아?

매디슨 – 죄송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물 한 잔만 주실래요?

그는 잠시 망설인다.

알렉상드르 – 잠깐 앉아 있어. 가져올게.

그가 나가자 그녀는 곧바로 생기를 되찾고 방 안을 살펴본다. 책상 위의 액자 속 여성 사진을 집어 들어 유심히 본다. 알렉상드르가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오는 기척에 황급히 사진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는 그녀에게 잔을 건넨다.

매디슨 – 감사합니다...

그녀는 잔을 받아 단숨에 비운다.

알렉상드르 – 좀 나아졌나?

매디슨 – 네, 고마워요.

그는 조금 부드럽게 대하려고 애쓴다.

알렉상드르 – 이렇게 맞아서 미안하군. 사람을 만난 지가 워낙 오래돼서 말이야.

매디슨 – 그럼 선생님도 혼자 사시는군요.

알렉상드르 – 그렇게 티가 나나?

매디슨 –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아이도 없으실 것 같고요.

알렉상드르 –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매디슨 – 있으세요?

알렉상드르 – 없어. 요즘 세상을 보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매디슨 – 그렇군요...

알렉상드르 – 지구를 구하고 싶다면 우선 아이를 낳는 것부터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

매디슨 – 그런데 모두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게 인류를 구하는 일이 될까요?

알렉상드르 – 그래도 프랑스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일 텐데.

매디슨 – 네. 그래서 저도 이 나라에 와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알렉상드르 – 프랑스인이 아니었나?

매디슨 – 매디슨이에요. 미국인이에요.

알렉상드르 – 그런데 프랑스어가 완벽하군. 억양도 없고.

매디슨 – 할머니가 프랑스인이세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프랑스어를 배웠고요. 파리에 온 건 소르본에서 문학을 공부하려고요.

알렉상드르 – 그럼 오늘 자네가 내 앞에 나타난 것도 순전히 우연이라는 건가... 매디슨.

매디슨 – 선생님은 알렉상드르, 맞죠?

알렉상드르 – 어떻게 알았지?

매디슨 – 아래 우편함에서 이름을 봤어요. 알렉상드르 들라크루아... 혹시 그...

알렉상드르 – 화가 들라크루아의 친척이냐고? 아니야.

매디슨 – 화가 말고 작가 들라크루아요!

알렉상드르 – 미국인인 자네가 알렉상드르 들라크루아를 알다니 놀랍군. 프랑스에선 벌써 잊힌 작가인데.

매디슨 – 과장이세요.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프랑스 밖에도 독자가 많고요. 그래서...?

알렉상드르 – 그래... 내가 맞아.

매디슨 – 정말요? 20 세기 문학에 여러 걸작을 남긴 그 전설적인 작가 알렉상드르 들라크루아?

알렉상드르 – 자네가 그렇다니 그런가 보지.

매디슨 – 몇 년째 새 작품도 내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인터뷰도 전부 거절하는 수수께끼의 작가... 정말 선생님이세요?

알렉상드르 – 내 집 문을 밀고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녀는 잠시 망설인다.

매디슨 – ...네. 솔직히 말하면요.

알렉상드르 – 그럼 고양이 얘기는 인터뷰를 따내려고 지어낸 건가?

매디슨 – 고양이 얘기는 진짜예요. 맹세해요. 하지만 맞은편 집으로 이사 올 때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알렉상드르 – 나를 엿보려고 일부러 맞은편 집을 빌렸나?

매디슨 – 엿보다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전 선생님 작품을 정말 좋아해요. 파리에 온 뒤 연락하려고 했는데,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답만 받았어요.

알렉상드르 – 그 문장에서 대체 어느 부분을 이해 못 한 거지?

매디슨 – 선생님을 만나려고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마침 집도 찾고 있었는데 맞은편이 비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빌렸죠.

알렉상드르 – 완전히 미쳤군! 계속 이러면 괴롭힘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어. 애초에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기자야?

매디슨 – 학생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에서 선생님 작품으로 석사 논문을 썼고, 연구를 계속하려고 파리에 왔어요. 선생님 소설 대부분이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하니까요. 미국인에게 파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예요.

알렉상드르 – 그런 엽서 같은 파리의 이미지로 내 작품의 숨은 뜻을 밝혀내겠다는 건가?

매디슨 – 제 논문 제목, 들어보실래요?

알렉상드르 – 아니.

매디슨 – 《알렉상드르 들라크루아의 소설 세계에 나타난 ‘부재’의 형상》.

알렉상드르 – 제대로 이해했군. 난 사람들의 ‘부재’를 좋아해. 특히 자네의 부재를. 그러니 이제 가줘.

매디슨 – 살아 있는 작가를 연구할 수 있다면 직접 만나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사람을 조금 더 알면 작품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고요.

알렉상드르 – 그건 착각이야. 작품만 읽고 작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나아. 위대한 작가가 실제로는 지독하게 시시한 인간인 경우도 많거든. 때로는 완전히 개자식이고. 작가만 그런 게 아니야. 예술가도 과학자도 마찬가지지. 천재는 가까이서 보지 않는 편이 나올 때가 많아. 안심해. 난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매디슨 – 겸손하신 건 알겠지만요... 《라탱 지구 연대기》의 작가와 단독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제 연구의 완벽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알렉상드르 – 읽어봤나?

매디슨 – 그 소설을 읽고 파리에서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전 그게 선생님의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알렉상드르 –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아니지만.

매디슨 – 상당히 자전적인 작품이죠?

알렉상드르 – 말했잖아. 작가의 인생은 독자에게 중요하지 않아.

매디슨 – 그리고 몇 년째 쓰고 있다는 수수께끼의 원고도 있다면서요.

알렉상드르 –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 출판사가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잊지 않게 하려고 퍼뜨린 소문일 뿐이야. 예전 책이라도 조금 더 팔아보려고 말이지. 어쨌든 인터뷰는 안 해. 자네한테도, 누구한테도. *(위협적으로 다가가며)* 이제 나가!

하지만 그녀는 나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다.

매디슨 – 싫어요!

그는 그녀의 단호함에 놀란다.

알렉상드르 – 뭐라고?

매디슨 – 인터뷰해 주시기 전엔 절대 자살 못 하게 할 거예요. 그 인터뷰를 위해서라면 대서양이라도 헤엄쳐 건널 수 있어요!

알렉상드르 – 그럼 돌아갈 땐 페달 보트라도 타고 가. 내 알 바 아니야.

그녀는 다시 기절할 듯 휘청인다.

알렉상드르 – 내 앞에서 쓰러질 뻔한 게 벌써 두 번째군. 통속 연애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나? 요즘 세상에 조금만 심기가 불편하다고 여자가 툭하면 기절하는 건 무대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매디슨 – 연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인다.

알렉상드르 – 구급차를 부를까?

매디슨 – 아니요. 하지만 잠깐 앉아 있어야겠어요.

알렉상드르 – 그러고 나면 갈 거지?

매디슨 – 약속할게요.

그녀는 앉아서 숨을 고른다.

알렉상드르 – 물은 이미 한 잔 줬고... 코냑이라도 한 잔 할래?

매디슨 – 아주 숨통을 끊으실 생각이세요?

알렉상드르 – 이미 늦었어. 처음부터 썼다면 정당방위라고 우길 수도 있었겠지. 지금 자네를 쏘면 계획적이었다는 걸 부정하기도 어렵겠군.

매디슨 – 왜 집에 권총을 두세요?

알렉상드르 – 원래는 귀찮은 손님을 쫓아내려고 뒀지. 보아하니 충분한 효과는 없었던 모양이군.

매디슨 – 작가들이 좀 사람을 싫어한다 해도... 누구에게나 곁에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나요?

알렉상드르 – 고양이라도 키우라고 할 셈인가? 자네 고양이를 나한테 떠넘기려는 건 아니겠지?

매디슨 – 외롭지 않으세요?

알렉상드르 – 고독은 커피와 같아. 처음엔 조금 쓰지. 그러다 익숙해지고, 나중엔 맛을 알게 돼. 결국엔 없으면 못 살게 되지.

매디슨 – 어록집을 한 권 내보시는 건 어때요? 분명 잘 팔릴 텐데요.

알렉상드르 – 애초에 “혼자가 아니다”라는 게 뭐지? 누군가와 같이 살면서 일 년 내내 똑같은 시시한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가족이나 친구를 가끔 만나면서 싸움 날 만한 중요한 주제는 일부러 피하는 것? 계단에서 이웃을 만나 날씨 얘기나 하는 것? 고양이가 알아듣는 척 하면서 말을 거는 것?

매디슨 – 그래도 글을 쓸 때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거잖아요.

알렉상드르 – 그래서 글쓰기를 그만쥔지.

매디슨 – 안 믿어요.

알렉상드르 – 믿으라고 한 적 없어. 그냥 날 내버려두라고 했지.

매디슨 – 그럼 인터뷰는 역시 안 된다는 거네요?

알렉상드르 – 이제 할 말이 없어. 더 나쁜 건, 말을 걸고 싶은 사람도 없다는 거야. 어떤 날은 나 자신에게조차 말 걸고 싶지 않아.

매디슨 – 슬프네요.

알렉상드르 – 인생이 다 그렇지. 어쨌든 내 인생은 끝에 가까워졌고.

매디슨 – 제 인생도... 그렇지 몰라요.

알렉상드르 – 자넨 나보다 마흔 살이나 어려. 내 딸이어도 이상하지 않아.

매디슨 – 손녀여도 이상하지 않죠.

알렉상드르 – 꿈이 알려줘서 고맙군. 어쨌든 자네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어.

매디슨 – 네... 하지만 꿈 끝날 수도 있어요.

알렉상드르 – 무슨 뜻이지?

매디슨 – 심장병이 있어요. 의사들은 앞으로 몇 년, 어쩌면 몇 달밖에 못 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온 거예요. 마지막 꿈 하나를 이루려고요.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는 분명히 동요한다.

알렉상드르 – 심장병이라니?

매디슨 –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어요. 아주 약해서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대요.

알렉상드르 – 아까 몇 번이나 어지러웠던 것도 그 때문인가?

매디슨 – 조금만 흥분해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그대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알렉상드르 – 설마 내가 자네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어낸 얘기는 아니겠지? 인터뷰를 받아내려고 말이야.

매디슨 –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알렉상드르 – 그건... 안됐군.

매디슨 – 선생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알렉상드르 – 참 기막힌 아이러니군. 나는 늙어서 아무것에도 흥미가 없고 죽을 생각이나 하는데, 자넨 젊고 인생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심장이 자네를 배신한다니.

매디슨 –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화내 봐야 소용없잖아요.

알렉상드르 – 그런데도 웃고 있군.

매디슨 – 남은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알렉상드르 – 자네의 그 삶의 의욕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우울해지는군. 자네 의심하거나 망설일 때가 없나?

매디슨 –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문을 밀고 들어온 거고요.

잠시 침묵.

알렉상드르 – 정말 희망이 전혀 없나?

매디슨 – 이식 수술이라면 가능해요. 하지만 기증자를 찾아야죠.

알렉상드르 – 내 심장을 줄까? 난 이제 쓸 일도 없는데. 내가 자살하고 장기를 자네한테 기증하는 거야.

매디슨 –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특히 심장은요. 신장이나 폐처럼 두 개 있는 장기와는 다르니까요.

알렉상드르 – 고환 같은 거.

매디슨 – 심장은 기증자가 뇌사 상태여야 해요.

알렉상드르 – 뇌사? 가끔은 내가 이미 그런 상태 아닌가 싶어. 내 주변에도 그렇게 보이는 인간이 꽤 많고.

매디슨 – 기증자가 사망했고, 심장은 건강하고, 게다가 아주 빨리 적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조건이 맞는 경우가 드물죠.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도 아주 많고요.

알렉상드르 – 듣자하니 중국에서는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에 쓴다더군. 확실히 편리하긴 하겠어. 이식 날짜부터 정하고 그날 사형을 집행하면 되니까.

매디슨 – 끔찍해요...

알렉상드르 – 하지만 그러면 이식받을 사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느긋하게 비행기로 올 시간도 있고, 온 김에 관광도 할 수 있지. 물론 공짜는 아닐 테고. 심장 하나가 대체 얼마쯤 할까? 알아본 적 있나?

매디슨 – 없어요...

알렉상드르 – 인터넷에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매디슨 – 친절도 하시네요.

알렉상드르 – 미안하군. 이런 걸 농담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데. 특히 자네 앞에서는. 그래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유머 정도 아닐까?

매디슨 – 그럴것죠...

알렉상드르 – 물론 방금 애긴 농담이라기보다 현실에 더 가깝지만.

매디슨 – 사형수의 심장으로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요. 선생님 심장이어도요. ...그래서요?

알렉상드르 – 그래서, 뭐?

매디슨 – 제 마지막 꿈도 못 이루게 그냥 보내실 만큼 잔인하세요?

알렉상드르 – 정말 고집이 세군.

매디슨 – 칭찬으로 들을게요.

알렉상드르 – 하지만 자네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지?

매디슨 – 누가 이런 얘기를 일부러 지어내겠어요? 모두가 이미 잊은 작가에게 인터뷰 하나 얻어내려고.

알렉상드르 – 이제야 인정하는군. 알렉상드르 들라크루아는 모두에게 잊힌 작가라고.

매디슨 – 그럼 해주시는 거죠?

알렉상드르 –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진단서를 보여준다면.

매디슨 – 죄송해요. 지금은 안 가지고 왔어요.

알렉상드르 – 바로 맞은편에 살잖아. 가서 가져오면 되지.

매디슨 – 제 말을 믿어주실 줄 알았어요. 조금 실망이네요.

알렉상드르 – 인터뷰를 해준다고 해도 실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난 사람 실망시키는 데는 꽤 재능이 있거든. 두고 봐.

그녀는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본다. 낡은 타자기에 시선이 멈춘다.

매디슨 – 지금도 타자기로 쓰세요?

알렉상드르 – 내 소설은 전부 이걸로 썼지. 하지만 그 수법엔 안 넘어가. 몇 년째 글을 안 쓴다고 했잖아.

매디슨 – 왜요?

알렉상드르 – 말은 지폐 같은 거야. 너무 많이 풀리면 가치가 떨어지지. 요즘 SNS 를 봐. 누구나 하루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자기 의견을 쏟아내. 무슨 주제든 말이야. 위조지폐가 넘쳐나면 진짜 돈까지 값어치가 떨어지듯, 말도 똑같아. 이제 말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됐지.

매디슨 – 사람들이 수다 떠는 걸 막을 순 없잖아요. 예전엔 카페에서, 지금은 SNS 에서 하는 것뿐이고요. 그래도 선생님 같은 훌륭한 작가는 계속 있을 거예요.

알렉상드르 – 훌륭한 작가는 이제 읽히지 않아. 인용될 뿐이지. 그것도 앞뒤 맥락은 상관없이 늘 같은 문장이 되풀이되다가 결국 뜻이 텅 비어버려. 복사와 붙여넣기가 생각을 대신하고, 이모지가 감정을 대신했어.

매디슨 – 그 말, 제 논문 결론에 인용해도 돼요?

알렉상드르 –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은 소수만 말할 권리가 있고 나머지는 입 다물고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욕하겠지. 틀렸어. 난 우리 모두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매디슨 – 묵념이라도 하자고요? 1 분 동안?

알렉상드르 – 1 분으론 부족해. 1 년. 한 세기. 천 년이라도 좋아. 지난 몇 년 동안 SNS 를 휩쓴 이 지독한 말의 설사가 멈춘 다음에야, 어쩌면 말이 다시 의미를 찾을지도 모르지.

매디슨 –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그런데 실연 때문에 글을 그만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알렉상드르 – 세상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법이지.

매디슨 – 그렇다고 부정하시지도 않고요.

알렉상드르 – 그렇다고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녀는 책상 위 사진을 다시 집어 든다.

매디슨 –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예요?

알렉상드르 – 자네가 알 바 아니야.

매디슨 – 아름다운 분이네요.

알렉상드르 – 자네가 정말 아프다 해도 내 사생활을 캐물을 권리까지 생기는 건 아니야.

매디슨 –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얼굴 같아서요.

그는 사진을 빼앗듯 받아 들여 바라보다가 제자리에 놓는다.

알렉상드르 – 아주 오래전에 사랑했던 여자야.

매디슨 – 선생님이 히피였을 때요?

알렉상드르 – 사실 그렇게까지 히피는 아니었어. 새로운 생각에는 열려 있었고 가끔 대마초도 피웠지만, 건강도 챙겼고 벌써 내 앞날을 생각하고 있었지. 글을 쓰려면 어느 정도 편안한 생활이 필요하거든. 위대한 작가가 되려면 때로는 소시민으로 남아 있어야 해.

매디슨 – 그분은요?

알렉상드르 – 그 여자는 자유로웠어.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았지.

매디슨 – 어디서 만나셨어요?

알렉상드르 – 이 건물 복도에서. 그 여자는 맞은편 집에 살았어. 지금 자네가 사는 곳이지.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어. 음악가, 예술가, 여행자들... 파리의 보헤미안들이 모이는 자유로운 아지트 같은 곳이었지. 문은 늘 열려 있었고.

매디슨 – 그래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느 날 그대로 떠나버렸군요. 제 고양이처럼.

알렉상드르 – 세상을 보고 싶어 했어.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 그 시절엔 전통적인 커플 관계가 우리 삶의 이상은 아니었지. 적어도 그 여자에겐 그랬어.

매디슨 – 그래도 선생님을 사랑했잖아요.

알렉상드르 – 그 여자 방식대로는. 아마도. 하지만 사랑한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던 건 아니고.

매디슨 – 자유연애...

알렉상드르 – 우리 부모 세대처럼 살고 싶진 않았어. 그건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문제는 그 대신 뭘 만들어야 할지 몰랐다는 거지. 조금이라도 오래갈 무언가를. 우리는 ‘현재’를 살았어. 늙는다는 건 상상도 안 했고. 그래서 서른 전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곱게 늙지 못했지. 늙은 히피란 별로 보기 좋은 존재가 아니야.

매디슨 – 그래서 그분을 혼자 여행하게 두신 거군요.

알렉상드르 – 붙잡을 수 없었어. 붙잡을 권리도 없었고. 어느 아침, 그 여자는 떠났지.

매디슨 – 어디로요?

알렉상드르 – 아프가니스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절이었어. 서구의 젊은이들이 아시아를 향해 떠나던 이른바 ‘히피 트레일’의 대표적인 목적지였지. 물가도 싼고 동양에 대한 동경도 강했어. 그때 프랑스의 히피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천국처럼 보였지.

매디슨 – 그런데 선생님은 남으셨고요.

알렉상드르 – 난 이미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 내 미래가 아프가니스탄에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매디슨 – 그래도 사랑했다면 같이 갈 수도 있었잖아요.

알렉상드르 – 물론이지. 나더러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그 여자가 꿈꿨던 연인끼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었지. 더더욱 신혼여행은 아니었고. 아시아로 떠나는 건 일종의 통과 의례였어. 여럿이 함께 멀리 떠나, 둘만의 사랑이라는 소시민적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행이었지.

매디슨 – 그래서 선생님은 파리에 남았고... 하지만 그분을 잊지 못하셨군요.

알렉상드르 –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적어도 소식은 올 거라고. 엽서 한 장이라도... 하지만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지.

매디슨 – 찾아보진 않으셨어요?

알렉상드르 – 아직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야. 누군가 자네 인생에서 사라지기로 마음먹으면 정말 사라질 수 있었어. 그리고 세월이 흘렀지.

매디슨 – 지금은 찾을 수 있잖아요.

알렉상드르 – 뭘 위해서?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결혼해서 애가 다섯이고 몸무게가 백이십 킬로가 됐을 수도 있어.

매디슨 – 아니면 살아 있고,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고, 가끔 선생님을 떠올릴 수도 있죠.

알렉상드르 – 모르는 게 나야. 난 이 사진 속 젊은 그녀를 기억하고 싶어. 사십 년 만에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봐. 충격이겠지? 자기 자신이 늙어가는 건 잘 못 느껴. 하지만 남이 늙은 건 아주 잘 보이거든.

매디슨 – 전 제가 늙어가는 걸 볼 시간조차 없을지도 몰라요.

알렉상드르 – 미안하군.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잠시 침묵.

매디슨 – 방금 고양이 울음소리 안 들리셨어요?

알렉상드르 – 아니... 아직 아무것도.

매디슨 –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알렉상드르 – 그것만은 제발 아니길.

매디슨 – 제가 죽으면 제 고양이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알렉상드르 – 아니, 자네는 안 죽어. 그리고 고양이가 자네보다 먼저 죽겠지. 아마도. 고양이는 보통 몇 년이나 사나?

매디슨 – 한 십오 년쯤요.

알렉상드르 – 자네 고양이는?

매디슨 – 두 살이에요.

알렉상드르 – ...그렇군.

매디슨 – 그래서요? 말해주실래요?

알렉상드르 – 자네가 들어왔을 때 난 관자놀이에 권총을 대고 있었어.

매디슨 – 바로 그래서요. 고양이가 있으면 자살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생기잖아요.

알렉상드르 – 채소 사료를 먹이고 매일 고양이 화장실을 치우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건가?

매디슨 –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요.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저녁이면 집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누군가요.

알렉상드르 – 날 기다린다고? 난 거의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아. 밤엔 더더욱.

매디슨 – 아까 정말 죽으려고 하셨어요? 아니면 누군가 구해주길 바랐던 건가요?

알렉상드르 – 적어도 자네를 부른 기억은 없는데.

매디슨 – 그래도 제가 그 부름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알렉상드르 – 사실 요즘은 희망을 가질 이유를 점점 찾기 어려워.

매디슨 – 얘기해보실래요?

알렉상드르 – 자네 사정을 알고 나니 내 우울한 이유를 줄줄이 늘어놓긴 좀 미안하군.

매디슨 – 이미 전쟁에서 질 걸 알아도 계속 싸우는 것. 그게 진짜 용기 아닌가요?

알렉상드르 – 내가 용감하다고 한 적은 없어. 자네만큼 용감하면 좋겠지만.

매디슨 – 전 용감한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없을 뿐이에요. 선생님과도 달리.

알렉상드르 – 나도 선택지는 많지 않아. 밧줄로 목을 매거나, 권총으로 머리를 날리거나.

매디슨 – 맞아요... 선생님은 정말 사람 우울하게 만드는 데 재주가 있으세요.

알렉상드르 – 처음부터 말했잖아. 난 고약한 늙은이야. 지금 시대가 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나쁜 건지, 아니면 내가 옛날보다 세상을 더 똑바로 보게 된 것뿐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세상이 더 잘 보일수록 대개 낙관적이 되긴 어렵지.

매디슨 – 역시 코냑 한 잔 주세요.

알렉상드르 – 정말?

매디슨 – 사람은 어차피 뭔가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는 코냑을 두 잔 따른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친다.

알렉상드르 – 자네의 건강을 위해! ...이런, 또 실언했군.

그녀는 미소 짓는다. 두 사람은 잔을 비운다.

매디슨 – 죽은 사람도 깨우겠네요.

알렉상드르 – 난 십 년쯤 술을 안 마셨어. 이 병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도 모르겠군. 그래도 술은 오래될수록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적어도 술꾼보다는.

매디슨 – 그래도 맛이 좀 이상해요. 정말 코냑 맞아요?

그는 병을 본다.

알렉상드르 – 아마도... 그런데 코냑이 원래 무슨 맛이었는지 이젠 잘 기억이 안 나.

매디슨 – 젊었을 때의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알렉상드르 – 어떤 젊은이?

매디슨 – 이 사진 속 여자를 사랑했고, 아직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시절의 선생님이요.

알렉상드르 – 자네 마음에 들었을지는 모르겠군.

매디슨 – 분명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했겠죠.

알렉상드르 – 야망으로는 가득했지.

매디슨 – 정말 이제 친구가 하나도 없으세요?

알렉상드르 – 늙은이를 못 견디거든. 그래서 또래는 되도록 안 만나. 매번 거울을 들이대고 내 늙어가는 꼴을 보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매디슨 – 지난 몇 년 동안 전혀 안 쓰셨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알렉상드르 – 그래서 나한테 술을 먹인 건가? 취하게 해서 비밀을 털어놓게 만들려고.

매디슨 – 작가는 쓰는 사람이잖아요.

알렉상드르 – 좋아. 사실 계속 썼어.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출판하지 않을 거야.

매디슨 – 왜요?

알렉상드르 – 말했잖아. 지금 독자에게 읽히려고 쓰는 게 아니야. 누군가 읽는다면 미래 세 대겠지. 오늘의 독자에게 내가 해줄 말은 없어.

매디슨 – 저한테도요?

알렉상드르 – 난 자네를 몰라. 내가 자네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매디슨 – 선생님 생각보다 우리에게 공통점이 많을지도 몰라요.

알렉상드르 – 둘 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말고?

매디슨 – 적어도 그 책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말해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인다.

알렉상드르 – 아주... 개인적인 소설이야.

매디슨 – 그러니까 자전적인?

알렉상드르 – 요즘 말로 하면 오토픽션이지.

매디슨 – 그래서 출판하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개인적이라서?

알렉상드르 – 내겐 그 원고가 일기장 같은 거야. 나를 전시하듯 드러내는 건 좋아하지 않아. 출판하면 늙어서 갑자기 감상적인 연애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겠지.

매디슨 – 남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안 쓰시는 줄 알았어요.

알렉상드르 – 보아하니 아직 그만큼 초연해지진 못한 모양이군.

매디슨 – 그건 누구도 못 해요.

알렉상드르 – 나 같은 사람 연구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럴 가치 없어.

매디슨 – 저한테 중요해요.

알렉상드르 – 왜? 자네 인생을 살아!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더더욱. 그리고 난 아직도 자네 말을 믿지 않아. 진단서도 못 봤고.

매디슨 – 믿지 않으면서 왜 결국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알렉상드르 – 그런 얘기를 지어낼 정도라면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뭐지?

매디슨 – 조금 복잡해요...

알렉상드르 – 그러니까 거짓말이었군. 심장은 멀쩡한 거고.

매디슨 – 그러니까... 제 문제는 심장보다 마음 쪽에 가까워요.

알렉상드르 –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매디슨 – 동정받고 싶었겠죠. 선생님이 절 내쫓으려 했으니까.

알렉상드르 – 지금이라도 내쫓을 수 있어.

매디슨 – 하지만 안 그러실 거예요.

알렉상드르 – 왜?

매디슨 –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알렉상드르 – 심장 문제가 비유적인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실연인가?

매디슨 – 어떤 의미에서는요. 선생님처럼 저도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때문에 힘들었어요.

알렉상드르 –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매디슨 – 곧 말씀드릴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그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요.

알렉상드르 – 말해봐.

매디슨 – 그 원고를 읽게 해주세요.

알렉상드르 – 왜 자네한테?

매디슨 – 사실은 누군가에게 읽히고 싶은 거잖아요. 의견도 듣고 싶고. 작가는 언제나 읽히기 위해 써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알렉상드르 –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은 사십 년도 더 전에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

매디슨 – 원고는 어디 있어요?

그는 책상 위 서류철을 가리킨다.

알렉상드르 – 저기.

매디슨 – 봐도 돼요?

그녀가 손을 뻗지만 그가 막는다.

알렉상드르 – 안 돼!

그녀는 잠시 말이 없고, 눈빛에 슬픔이 스친다.

매디슨 – 역시 선생님 말이 맞네요. 정말 고약한 늙은이예요. 이제 혼자 실컷 자기연민에 빠져 계세요.

그녀는 나가려 한다.

알렉상드르 – 기다려.

그는 망설이다가 원고를 집어 그녀에게 내민다.

알렉상드르 – 읽어도 돼.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매디슨 – 뭔데요?

알렉상드르 – 이 원고는 이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아.

매디슨 – 제가 복사해서 허락도 없이 출판할까 봐요?

알렉상드르 – 조건은 그거야. 싫으면 읽지 마.

그녀는 서류철을 받아 무게를 가늠해본다.

매디슨 –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알렉상드르 – 난 급할 거 없어. 자넨?

매디슨 – 저도요.

알렉상드르 – 원하면 손님방을 써. 요즘은 거의 쓰지 않아. 친구들이 다 죽었거든.

매디슨 – 감사합니다.

알렉상드르 – 그럼 읽는 동안 방해하지 않지.

그가 나간다. 그녀는 원고를 읽기 시작한다.

암전.

매디슨은 안락의자에 앉아 여전히 원고를 읽고 있다. 마지막 장을 넘기고 서류철을 닫는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일어나 객석 쪽, 맞은편 창문을 바라본다. 알렉상드르가 커피 두 잔을 들고 들어와 한 잔을 그녀 앞에 놓는다.

알렉상드르 – 자. 미리 말해두지만 디카페인이야. 이걸로 잠이 깰 거라 기대하진 마.

매디슨 – 감사합니다.

알렉상드르 – 끝까지 못 읽었나 보군.

매디슨 – 방금 다 읽었어요.

알렉상드르 – 벌써? 말도 안 돼. 몇 장은 건너뛰었겠지.

매디슨 – 안 건너뛰었어요. 정말이에요.

침묵이 이어지자 알렉상드르는 조금 불안해 보인다.

알렉상드르 – 감상을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어. 특히... 마음에 안 들었다면.

매디슨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숨에 읽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고요.

알렉상드르 – 그럼 조금 안심이 되는군. 내가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소설을 쓴 줄은 몰랐지만.

매디슨 – 선생님 최고의 작품이에요. 다른 작품들에는 없던 인간적인 온기가 있어요.

알렉상드르 –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군. 적어도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는.

매디슨 – 다른 소설들은 영리하고 빛났어요. 하지만 이 작품은 가슴을 울려요.

알렉상드르 – 알아챘나? 자네 논문 주제하고도 딱 맞지.

매디슨 – 제 논문...?

알렉상드르 – 《알렉상드르 들라크루아의 소설 세계에 나타난 ‘부재’의 형상》. 벌써 읽었나?

매디슨 – 물론 기억해요. 그리고 맞아요. 스무 살의 한 남자가 젊은 날 사랑의 유령만을 동반자로 삼아 살아가기로 하는 이야기...

알렉상드르 – 첫사랑은 잊히지 않아. 첫사랑 그 자체보다, 그때의 젊은 자신이 그리운 건지도 모르지. 모든 ‘처음’이 있던 시절 말이야. 사람은 첫사랑에는 충실할 수 있어. 처음 사랑한 사람에게 늘 충실한 건 아니지만.

매디슨 – 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과거 속에서만 살아버리는 것.

알렉상드르 – 그래도 꿈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출판하는 게 좋을까?

매디슨 – 제가 “네”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알렉상드르 – 그래도 자넨 내 작품의 전문가라며.

매디슨 – 이 책이면 다시 작가로 주목받을 수 있어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학상인 공쿠르상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알렉상드르 – 거기까지 가면 너무 나갔어. 기운 내게 해주려는 건 고맙지만, 조금은 현실성 있게 해줘.

매디슨 – 진심이에요. 정말로요.

알렉상드르 – 물론 완벽하게 객관적인 평가겠지.

매디슨 – 의심하세요?

알렉상드르 – 모르겠군. 다만 자네가 한물간 작가로 논문 하나 쓰려고 파리까지 왔다는 건 아무래도 믿기 어려워.

잠시 침묵.

매디슨 – 맞아요. 아직 전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알렉상드르 – 심장병도 아니고, 고양이도 없고, 학생이라는 것도 거짓말인가?

매디슨 – 사실인 건 제가 미국인이고, 선생님을 만나려고 프랑스에 왔다는 거예요.

알렉상드르 – 이미 몇 주째 맞은편에 살았잖아.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이지?

매디슨 – 어제 아침, 창문 너머로 봤어요. 선생님이 천장에 밧줄을 걸려고 하다가, 그다음엔 권총을 꺼내는 걸요.

알렉상드르 – 밧줄을 걸 만한 곳을 못 찾았어.

매디슨 –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이 사라져버릴까 봐. 그래서 급히 이리로 왔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지어냈어요.

알렉상드르 – 꽤 그럴듯한 연기였어. 무대에 서도 되겠군. 하지만 인생도 극장도 마찬가지로. 커튼 뒤에서 보이는 걸 그대로 믿어선 안 돼. 때로는 전부 환상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비춰보는 것뿐일 수도 있으니까.

매디슨 – 그 밧줄은 목을 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알렉상드르 – 그냥... 샹들리에를 달려고 했을 수도 있지.

매디슨 – 그럼 권총은요?

그는 서랍에서 권총을 꺼낸다.

알렉상드르 – 장난감일 수도 있어. 도둑 겁주려고 둔 가짜 총. 아니면 그냥 권총 모양 라이터. *(방아쇠를 당기자 총구에서 불꽃이 나온다)* 이제는 쓸모도 없지만. 죽는 게 무서워서 담배를 끊었거든. 그래도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담배 한 갑은 늘 손 닿는 곳에 두지. 술도 끊었고, 카페인까지 끊었어. 이 정도면 건강을 꽤 챙기는 편이야.

매디슨 – 그럼 정말 자살할 생각이었던 건 아니네요?

알렉상드르 – 계획까지 세운 건 아니야. 생각은 조금 있었지. 솔직히 지금 내게 남은 유일한 욕망일지도 몰라. 끝내고 싶다는 욕망. 하지만 자살하려면 용기가 필요해. 내겐 그 용기가 없어. 아니면 아직 그만큼 절망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고. 게다가 뭐 하러 서두르지? 남들처럼 내 차례를 기다리면 되는데.

매디슨 – 그럼 우리가 만난 건 단순한 오해 때문이었던 건가요?

알렉상드르 – 나 같은 작가를 인터뷰하겠다고 대서양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믿기 어렵군. 난 우연도 믿지 않아. 그래서, 자넨 왜 여기 있는 거지?

매디슨 –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전에, 이 원고의 첫 독자가 되게 해주신 것부터 감사드리고 싶어요.

알렉상드르 – 정말 좋았나?

매디슨 – 걸작이에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알렉상드르 – 그럼 그렇지. 칭찬만 한다 했어. 말해봐.

매디슨 – 결말만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알렉상드르 – 맞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니까. 에필로그가 빠진 것처럼.

매디슨 – 제가 그걸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렉상드르 – 자네도 글을 쓰나? 나한테 공동 작업이라도 제안하러 온 건가? 요즘 영감이 조금 메말라가긴 했지만, 아직 내 대신 책을 써줄 대필작가를 구할 지경까진 아니야.

매디슨 – 그 일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알렉상드르 – 논문 얘기도 꾸며낸 거군. 그럼 나하고 문학 얘기 좀 하려고 이런 연극을 벌인 것도 아니고.

매디슨 – 네. 그것만은 아니에요.

알렉상드르 – 그럼 왜?

매디슨 – 답은 방금 읽은 원고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맞은편 창문》... 왜 이런 제목을 붙이셨어요?

알렉상드르 – 《맞은편 창문》. 자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창문이야. 오래전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거기 살았지.

매디슨 – 그리고 떠난 뒤에도 계속 선생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요.

알렉상드르 – 여러 번 꿈을 꿔. 어느 날 그 여자가 돌아와 오늘 자네처럼 이 문을 밀고 들어오는 꿈을.

매디슨 – 그래서 늘 문을 열어두시는 거군요.

알렉상드르 – 가끔 맞은편 창문의 커튼 뒤로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어. 자네가 이사 온 뒤 밤에 불이 켜진 걸 보면 혹시 그 여자가 아닐까 생각했고.

매디슨 – 그건 저였어요.

알렉상드르 – 자넨 그 여자를 조금 닮았어. 그래서 아까 처음 자넨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움찔했지. 스무 살의 그 여자가 돌아온 줄 알았어. 그러다 생각났지. 지금이라면 그 여자도 나와 비슷한 나이일 거라고.

매디슨 – 네. 저, 그분을 닮았어요.

알렉상드르 – 설마 그 여자의 유령이라고 하진 마.

매디슨 – 아니에요. 전 분명히 살아 있어요.

알렉상드르 – 하지만 아직 뭔가 더 있군요?

매디슨 – 네.

알렉상드르 – 왜 그 사진을 보고 “어디서 본 얼굴 같다”고 했지?

잠시 침묵.

매디슨 – 저는 그분의 손녀예요.

침묵.

알렉상드르 – 손녀...?

매디슨 – 그분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을 때 임신한 상태였어요.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대요.

알렉상드르 – 임신... 내 아이를?

매디슨 – 네.

알렉상드르 –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매디슨 –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땐 다른 시대였다고. 할머니는 아이 때문에 선생님을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혼자 키웠어요.

알렉상드르 – 난 아무것도 몰랐어.

매디슨 – 저도요. 적어도 얼마 전까진.

알렉상드르 – 언제 알았지?

매디슨 – 몇 년 전이요. 제가 열여덟 살이 됐을 때 할머니가 이야기해줬어요. 선생님과 의 사랑 이야기를.

알렉상드르 – 그럼 자네는... 내 손녀?

매디슨 – 네. 선생님의 손녀예요. (잠시) 못 믿으시겠어요?

알렉상드르 – 아니... 이상하게도, 그 많은 거짓말을 듣고 난 뒤인데도 이건 의심할 마음이 안 드는군.

매디슨 – 너무 갑작스럽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요. 원하시면 이대로 돌아갈게요. 다시는 제 소식 들을 일 없을 거예요.

알렉상드르 – 있어줘. 부탁이야.

매디슨 – 여기 있어요.

잠시 침묵.

알렉상드르 – 그때 아무 말 안 한 건 이해해. 하지만 그 뒤에도?

매디슨 –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는 선생님에게 갑자기 아버지 역할을 떠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엔 선생님의 행방도 알 수 없게 됐고요.

알렉상드르 – 그 여자가 떠나고 얼마 뒤 나도 이 집을 떠났어. 매일 저 창문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 그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눈앞에 들이대는 것 같았어.

매디슨 –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가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이 주소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되돌아왔고요.

알렉상드르 – 여기로 돌아온 건 몇 년 전이야. 바로 이 책을 쓰려고. 과거를 털어낼 수 있을까 해서.

매디슨 – 하지만 그분의 유령은 여전히 선생님 곁을 맴돌았군요...

알렉상드르 – 물론 그 뒤로 다른 여자들도 만났어. 하지만 평생 첫사랑의 기억 속에서 살았지. 그 여자처럼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매디슨 – 할머니는 선생님이 결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다고.

알렉상드르 – 그런 일은 없었어.

매디슨 – 선생님이 유명한 작가가 됐을 때 할머니도 선생님 소식을 알게 됐어요.

알렉상드르 – 내가 작가로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쓴 것도 그 여자가 다시 나를 찾아내길 바랐기 때문이야. 이름이 알려지면 그 여자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거라고 생각했지. 그때라면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

매디슨 – 하지만 할머니는 선생님이 성공한 뒤에 나타나면 명성이나 돈 때문에 돌아온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대요.

알렉상드르 – 그럼... 내게 딸이 있었던 거군...

잠시 침묵.

매디슨 – 제 병 얘기도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심장이 약했던 건 제 엄마예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알렉상드르 – 그건... 정말 안됐군.

매디슨 – 저를 키운 건 할머니예요.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제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직접 선생님께 연락할 용기가 없었고요.

알렉상드르 – 그래서 대신 자네가 파리로 왔군.

매디슨 – 편지나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사람 상대를 싫어하는 괴팍한 은둔자라는 평판이 있었거든요. 정말 싫은 사람이었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뉴욕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알렉상드르 – 그런데 내가 워낙 따뜻하게 자네를 맞아줘서, 날 할아버지로 입양하기로 한 거군.

매디슨 –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이 원고예요. 선생님이 그 여자를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할머니를요.

알렉상드르 – 와줘서 다행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려줘서.

매디슨 – 아직 완전한 결말은 아니예요. *(알렉상드르가 긴장한다)* 괜찮으세요?

그는 감정을 감추려고 농담조로 대답한다.

알렉상드르 – 나이만으로도 이미 우울한데, 이번엔 내가 할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군.

매디슨 – 기쁘지 않으세요?

알렉상드르 – 물론 기뻐. 하지만 동시에 딸이 있었다는 것과, 그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

매디슨 – 하지만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전 엄마를 거의 몰랐어요. 대신 할아버지를 찾았고요.

알렉상드르는 원고를 집어 든다.

알렉상드르 – 이 책은 출판할 거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딸에게 바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집에 제멋대로 들어온 손녀에게도.

매디슨 –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알렉상드르 – 그래도 이 소설에는 아직 진짜 결말이 필요해.

매디슨 –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알렉상드르 – 여기서 더 놀랄 일이 생기면 이번엔 정말 내 심장이 못 버틸지도 모르겠군.

매디슨 – 사실 하나만 더 있어요.

알렉상드르 – 말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뭐든 듣지.

매디슨 – 할머니는 살아 계세요.

알렉상드르 – 지금 어디 사시지?

매디슨 – 뉴욕이요.

알렉상드르 – 그럼 내 대신 따뜻하게 안아줘.

매디슨 –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알렉상드르 - 나를 미국으로 데려갈 생각인가?

매디슨 - 할머니도 저와 함께 파리에 왔어요. 맞은편 집에 계세요.

잠시 침묵. 그는 완전히 할 말을 잃는다.

알렉상드르 - ...이제야 정말 무서워지는군.

매디슨 - 지금도 아주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선생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선생님 책도 전부 읽으셨고요.

알렉상드르 - 하지만 작가의 삶을 알고 하진 않았군.

매디슨 - 그런 건 작품과 상관없다고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알렉상드르 - 이 소설 속 '부재한 사람'은 그 여자야.

매디슨 - 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 아직도 사랑하는지도.

알렉상드르 - 사랑해. 이 책 자체가 그 증거야.

그는 객석 쪽, 맞은편 창문을 바라본다.

매디슨 - 그래서요? 할머니를 부를까요?

알렉상드르 - 그 여자가 날 만나려고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나도 그 여자를 만나러 북도 정도는 건널 수 있겠지.

알렉상드르는 매디슨을 다정하게 껴안는다.

매디슨 - 혼자 가세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맞은편 창문 너머에는 예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가 나간다. 매디슨은 그대로 남아 맞은편 창문을 바라본다.

암전.

끝

저자 소개

장피에르 마르티네스(Jean-Pierre Martinez)는 1955 년 프랑스 오베르쉬르우아즈(Auvers-sur-Oise)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 록 밴드에서 드러머로 활동한 뒤 광고 분야의 기호 학자로 일했으며, 이후 텔레비전 시나리오 작가를 거쳐 극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약 100 편의 텔레비전 시나리오를 집필했으며, 현재까지 **123 편의 희곡**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코미디와 희곡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100 여 개국 이상**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장피에르 마르티네스의 작품은 현대 사회와 인간관계, 권력, 우연, 정체성 등의 주제를 유머와 풍자, 부조리, 때로는 블랙코미디를 통해 다룹니다.

그의 희곡 전문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공개 공연은 사전에 공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 페이지 링크
jeanpierremartinez.net

저작권 및 공연 안내

저자: Jean-Pierre Martinez

번역 및 각색: 저자

본 작품의 텍스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자의 사전 허가 없이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출판, 각색 또는 변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 희곡은 개인적인 열람을 목적으로 무료로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 및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모든 공개 공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공연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피에르 마르티네스(Jean-Pierre Martinez)는 프랑스 작가·작곡가 협회인 **SACD** (Société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를 통해 저작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 허가 및 저작권에 관한 문의는 아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페이지 링크

<https://jeanpierremartinez.net/en/contact-2/>

아비뇽 - 2026 년 10 월

© Jean-Pierre Martinez